



## 타인의 슬픔



문득 옆을 돌아보고서 또 다른 슬픔의 주자를 발견할 때, 비로소 슬픔의 달리기는 끝이 납니다. “당신도 그랬구나!” 하는 진한 파동이 느껴질 때 슬픔의 세상에는 빛이 비칩니다.

- 이미령의 <타인의 슬픔을 마주할 때 내 슬픔도 끝난다> (쌤터간) 중에서

나는 늘 나보다 커다란 슬픔과 고통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정을 상상만 하며 살아왔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대체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어떻게 먹고 자고 웃을 수 있었을까? 티끌만큼의 도움도 안 되는 주제에 호기심과 다들 바 없는 위선적인 마음 그 한편에는 분명 안도의 한숨을 쉬었으리라. 감사의 기도도 드렸으리라.

그러던 어느 날 내 아들이 세상을 떠나자 나는 통탄의 눈물을 흘렸다. 멀쩡했던 내 착하고 건강했던 아들을 하루아침에 하늘로 데려간 것은 필시 내 알팍하고 비열한 마음 씀씀이 때문에 벌을 받은 게 분명하다고 확신하며 내 가슴을 찼다. 나는 얼마나 많이 타인의 슬픔과 고통을 내 자신이 가진 것과 비교하며 안도하고 감사했던가!

그런데 한순간에 나는 주위로부터 위로를 받는 딱한 사람, 극한 슬픔의 주인공이 되었다. 슬픔의 무게와 강도를 어찌 측정하고 순위를 매길 수 있을까 만은 그냥 순식간에 나는 왕중왕 자리에 앉아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끊임없는 위로를 받았다. 사람마다 성격, 취향, 친분의 정도와 형편도 다르니 위로의 방법도 제각각이었다. 절친한 사람들의 위로가 어느 정도 예상 가능했던 것이라면 종종 예상치 못한 뜻밖의 위

로들도 있었는데 그건 바로 잘 모르는 사람들, 혹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위로였다.

주로 이들은 나의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으로 먼저 연락을 했고 혹시라도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폐가 될까 봐 주저하고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연락했다. 그 중에는 본인의 슬픔과 아픔을 나누어 주는 이들도 있었는데 “나도 슬펐어요. 나도 아팠어요. 나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어요.”와 같은 고백들은 묘하게도 내게 커다란 위안이 되었다.

한 사람은 세상을 떠난 내 아들과 똑같은 나이의 아들을 키우고 있다고 했다. 한창 사춘기인 아들이라 속 뒤집히는 일도 많고 싸움도 잦았는데 그날 밤도 늦게까지 아들과 싸우다가 방으로 돌아와 나의 사연을 읽게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너무 미안해서 한참을 울었다고 한다.

우리 아이와 이름이 같은 한 아이는 큰 사고로 쓰러져 열흘간 의식을 찾지 못하다가 극적으로 깨어났을 때 마치 아기처럼 걷지도 말도 못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렇게 1년을 고생한 끝에 이제는 재활 치료를 받으며 잘 지내고 있다며 의식 잃은 아이 곁에서 엄마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막막했던 순간과 간절했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고 했다.

한 엄마는 작년에 여섯 살 아들을 사고로 보내고 신앙의 힘으로 지난 1년을 버텼다고 고백했다. 여전히 눈을 감으면 아들의 마지막 날이 떠올라 괴롭고 힘들지만 천국에서 다시 아이를 만날 날만 기다린다고 했다.

왜 나에게 먼저 연락을 했고 왜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는지 묻지 않았지만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들의 고백은 나를 향한 그들만의 위로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내 가슴을 치고도 또다시 타인의 슬픔을 통해 위로를 얻는 내가 이기적이고 부끄럽게 느껴졌지만 확실히 나는 덜 외로웠다. 나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구나 싶어서 안도하기도 했다. 마치 인적이 전혀 없는 캄캄한 골목길을 홀로 걸어가는데 내 앞으로 걸어가는 어떤 여성을 발견했을 때의 느낌이랄까? 전혀 모르는 생판 남이지만, 호위무사도 경찰도 아니지만 나처럼 연약할지 모르는 여성이지만 같은 공간, 같은 어둠 속에 우리는 그저 비슷한 처지라고 느껴지니 전장에서 만난 아군과 다를 게 없다. 아, 내가 혼자 아니구나! 당신도 여기 있었구나!

그동안 나는 슬프고 힘든 감정을 가족이나 친구들에게조차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았다. 하지만 이렇게 살다 보니 가족이나 친구들도 적절한 위로를 줄 수 없게 되고 결국 그렇게 힘든 시간을 홀로 보내 놓는 그때 외로웠다고 오래오래 원망 섞인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래서 나는 이번만큼은 주위의 도움과 위로를 마다하지 않고 감사히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의 어깨에 기대기로 했다. 대신 나의 슬픔과 고통이 다른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감사의 주제 될 수 있다면 나는 계속 나의 슬픔을 전하리라. 나를 통해 당신의 슬픔의 달리기가 끝나길 바라며.....

\*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와 26년 동안 생활했던 필자는 2017년 8월부터 다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는야 1.5세 이집'은 '재미교포 1.5세 이집' 인 필자가 한국 생활을 하면서 전하는 생생하고 유쾌한 한국 이야기이다. <편집자 주>

**꿈과 사랑이 싹트는 내 집 마련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귀하의 집을 30일안에 매매를 성사시키는 전문팀을 갖춘 Listing 에이전트 아이비를 찾아주세요**

<p><b>*독점*오렌지 힐</b></p> <p>fixer city and canyon view 3,332 sq.ft 방5개 화3 큰 보너스룸 조금 손보셔야 하는 집 그냥 사면 대박나는 매물입니다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근처 119만불에 팔리고 있는 집 <b>\$950,000</b></p>	<p><b>*독점*부에나팍</b></p> <p>마켓에 안나온 집 1990년 방4 화3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교통 편리하고 생활 편리한 지역 예쁘게 잘 가꾸어진 정원과 마루바닥 <b>\$739,000</b></p>	<p><b>라미라다 단층집</b></p> <p>IN ESCROW</p> <p>대지 10,228sf 방4 화3 수영장 이런가격에 이런 집은 다시 보기 힘든 집 보시면 반할 단독 주택 <b>\$638,000</b></p>	<p><b>*독점*오렌지힐</b></p> <p>IN ESCROW</p> <p>오렌카운티 시내 전체와 카타리나 섬이 보이는 숨막히는 전망을 가진 집 방5 화3 넓은대지 10,000sf 단지내 최고의 자리에 위치한 집전체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집 보시면 한눈에 반하실 turn key 매물입니다. <b>\$1,198,000</b></p>
<p><b>새집 분양</b></p> <p><b>플러튼 부에나팍 라하브라</b> 방 3개 화 3개 1,578sf <b>\$55만~\$59만부터</b></p>	<p><b>*독점*라하브라 단층집</b></p> <p>IN ESCROW</p> <p>대지 11000sf, 방3 화3 + 넓은 보너스 룸 1,902 + 560sf 넓은 뒷마당 많은 과일 나무(아보카도,오렌지 자몽,석류,무화과,마카다미아 등) <b>\$789,000</b></p>	<p><b>뉴포트비치 상가 단독 건물</b></p> <p>포텐셜 아주 좋은 뉴포트비치 변화가 위치 9대 까지 파킹할수 있는 단독 주차장 스페이스 주위 상권들 아주 활발한 지역입니다. 어서 서두르세요~ Grooming shop, Deli, Coffee shop, Retail 등등 발보아 아일랜드가 가까운 아주 좋은 위치 비즈니스 대박 나실 자리 임에 틀림 없습니다 아주 좋은 리스 조건</p>	<p><b>렌트</b></p> <p><b>플러튼 하우스 렌트</b> 방4 화3 마루바닥 좋은 학군 새페인트 넓은 정원 <b>\$3,200</b></p> <p><b>플러튼 타운홈 렌트</b> 방3 화3 좋은 학군 도보거리 <b>\$2,500</b></p>

**주택,상가,사업체 투자매물 전문 차별화된 전문가의 서비스가 꼭 필요합니다**

**Leah Ivy Chang**  
Realtor  
DRE Lic: 02086695

전 미국대학입시 코디네이터  
칼리지 카운셀러

Member of NAR, CAR, PWR  
**LeahchangRealty@gmail.com**